조선어신철자법

조선 어문 연구회

이책은 1948년에 북한에서 제정되다가 폐기된 "조선어신철자법"을 한글화하면서 수록한것이다.

결국, 새룎은 "조선어철자법"이 제정되면서 이철자법은 폐기되얐으나, 북한에서는 아직 이철자법의 영향(자모의 순서, 두음법칙의 부적용 등)이 남아있으며. 또 지금까지 철자법 중 형태음소론적표기를 가장 절저한것으로 일정한 가치가 있다.

《주 의》

1.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바꿨다. 다만 원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철자는 신철자법에 의거하였다.
2. 단어뒤의 괄호내한자는 필요성이 낮다는 실질적측면과 원문이 불선명하야 정확히 입력하기가 곤난하다는 현실적측면 2가지 측면에서 수록하지 않았다.
3. 띄여쓰기는 원문을 유지하였다.
4. "ㅛ, ㅣ"는 원문에서는 "ㅛ, ㅣ"와 같이 디자인되야 있지만 이책에서는 "ㅛ, ㅣ"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얐다.
5. 원문이 청봉체(바탕체)를 사용함을 반영하야 전체적으로 청봉체를 사용하얐으나 일부 다른 글꼴들도 사용하얐다.
6. 위 5점은 원칙에 불과한다.

조선어 신 철자법

차 례

머리말 ..... (1)
총 론 ..... (3)
각 론 ..... (3)
제1장 자모 ..... (3)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 (3)
제2절 자모의 이름 ..... (3)
제2장 어음에 관한 것 ..... (4)
제1절 된소리 ..... (4)
제2절 설측음 "ㄹ" ..... (4)
제3절 구개음화 ..... (4)
제4절 말음표기 ..... (5)
제5절 반모음 "ㅣ" ..... (6)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 (6)
제1절 체언의 어간과 토 ..... (6)
제2절 용언의 어간과 토 ..... (7)
제3절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 (8)
제4절 소위 변격 용언의 처리 ..... (8)
제5절 받침ㅁ ..... (10)
제6절 원형 표시 ..... (14)
제7절 품사 합성 ..... (19)
제8절 원사와 접두사 ..... (20)
제4장 어휘에 관한 것 ..... (21)
제1절 한자어 ..... (21)
제2절 략어 ..... (24)
제3절 표준어 ..... (26)
제4절 외래어 ..... (28)
제5장 문장에 관한 것 ..... (28)
제1절 띄여 쓰기 ..... (28)
제2절 부호 ..... (29)
"조선어 신 철자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 (31)

머리말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일제 기반에서 해방되여,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자유롞이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우리는 우리의 어문을 더한층 통일 발전시키ㄹ 온갖 방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이에 북 조선 인민 위원회는 1947년 2월 5일에 제 175 호 결정으로써 조선 어문 연구회를 조직하고, 이 연구회 전문 연구 위원들에게 철자 문제, 한'자 문제, 횡서 문제 등 조선 어문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을 조선어 철자법 제정 사업에 궐기한 "조선 어문 연구회" 전문 연구 위원들은 우리의 진보적 어학자들이 30 여년에 걸치여 이루어 놓은 학적 성과를 토대로 하고, 이에 심각한 연구와 엄격한 비판을 거듭한 결과, 일단 성안을 얻어 1948년 1월 15일에 "조선어 신철자법"을 사회에 발표하였다. 그 후 수십회에 걸치ㄴ 각종 학술적 회합에서 각계 인사들의 토의 검토에 붙이였으며, 특히 1948년 10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제 10 호 결'정서에 의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래참한 어학자들도 망라하여 조선 어문 연구회가 재조직되자, 1949년 7월 26일에는 전체 위원이 다시 이 "조선어 신철자법"을 검토하여 그곳에 기본적으로 그릇됨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조선어 신철자법"은 언어와 문'자의 본질적인 사명에 립각하여 한편으로는 남 조선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다한 비판 검토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조선 어문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한'자 철폐와 문'자 개혁(풀어서 가로 쓰기)을 예견하는 견지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일정한 의미를 가지ㄴ 낱말을 언제나 고정적으로 표시하고, 문'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사 표시의 도구로 삼게 한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 종래의 철자법에 적지 않은 변동을 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이 우수한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발전시키여 그 진'가를 남기ㅁ 없이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변혁이였다.

이제 "조선어 신철자법"을 간행하면서, 전체 인민이 조국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랑하여 연구 비판하는 사업을 더한층 높은 수준에서 전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950년 4월 15일
조선 어문 연구회

총 론

1. 조선어 철자법은 현대 조선 인민의 언어 의식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 고유의 발음상의 제규칙을 존중한다.
3. 문장의 단어는 원칙적으로 각각 띄여 쓴다.
4.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
5. 모든 문서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횡서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각 론

제1장 자모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제1항 조선어자모의 수는 현대의 필요와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종래의 스물 넉 자를 마흔 두 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ㄹ ㅁ ㅿ ㆆ ㅓ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단, 문자 개혁 이전에 있어서는 ㅘ, ㅙ, ㅝ, ㅞ와 모음 뿐인 곳에 ㅇ자를 가반하여 표기한다).

제2절 자모의 이름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 기윽(그) ㄴ 니은(느) ㄷ 디읃(드) ㄹ 리을(르) ㅁ 미음(므) ㅂ 비읍(브) ㅅ 시읏(스) ㅇ 이응(으) ㅈ 지읒(즈) ㅊ 치읓(츠) ㅋ 키읔(크) ㅌ 티읕(트) ㅍ 피읖(프) ㅎ 히읗(흐) ㄲ 끼윾(끄) ㄸ 띠읕 (뜨) ㅃ 삐읇 (쁘) ㅆ 씨읐(쓰) ㅉ 찌읐 (쯔) ㄹ 리읕(르) ㅁ 리을(르) ㅿ 시읏(스) ㆆ 히응(흐) ㅓ ㅓ윾(반모음 ㅜ) ㅣ 이(반모음 ㅣ)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ㅚ외 ㅟ위 ㅢ의

단, "히읗"는 [히으], "리읕"는 [리으], "시읏"는 [리읃], "히응"는 [히으], "ㅓ윾"은 [우읍]이라 발음한다.

제2장 어음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3항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거꾸로	것구로
부썩	붓석
소쩍새	솟적새
토끼	톳기
해쓱하다	햇슥하다
깨끗하다	깻긋하다
어깨	엇개
어떠하다	엇더하다
어찌	엇지
여쭈다	엿주다
오빠	옵바
으뜸	읏듬
이따금	잇다금

제2절 설측음 "ㄹ"

제4항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설측음을 종래에는 "ㄹ, ㄹ"로 적던 것을 "ㄹ"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거레	걸레
다래다	달래다
더렁이	덜렁이
버레	벌레
시룩시룩	실룩실룩
진다래	진달래
아락다락	알락달락
어른	얼른

제3절 구개음화

제5항 "ㄷ,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지ㄴ “이, 이,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하여 “ㅈ, ㅊ”에 가깝아지ㄴ다. 례: (갑과 같이 표기하고 을에 가깝게 발음한다.)

갑	을
굳이	구지
해돋이	해도지
땀받이	땀바지
같이	가치
밭이	바치
끝이	끄치

갑	을
핥이다	할치다
걷히다	거치다
닫히다	다치다
묻히다	무치다

제4절 말음 표기

제6항 ㅂ, ㅍ, ㅺ, ㅄ; ㄷ, ㅌ, ㅅ, ㅿ, ㅆ, ㅈ, ㅊ; ㄱ, ㅋ, ㄲ, ㄳ 등의 음이 말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련발되지 않는 다른 음이 올 적에 각각 (ㅂ), (ㄷ), (ㄱ)로 발음되더라도 그 원형에 따라 받치ㅁ을 밝히여 적는다. ㄷ로 발음되더라도 원형 밝히ㄹ 수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1) ㅂ로 발음되면서도 ㅂ, ㅍ, ㅄ, ㅺ으로 적는 례:

밥　　밥상
무릎　　무릎아래
아름답다　숣다
값　　값없다

2) ㄷ로 발음되면서도 ㄷ, ㅌ, ㅅ, ㅿ, ㅆ, ㅈ, ㅊ으로 적는 례:

곧
팥　　팥알
옷　　옷안
겆다
있다
젖　　젖어미
꽃　　꽃아래

3) ㄱ로 발음되면서도 ㄱ, ㅋ, ㄲ, ㄳ으로 적는 례:

속　　속옷
부엌　부엌안
밖
넋　　넋없다

4) ㄷ로 발음되면서도 ㅅ으로 적는 례:

덧저고리　빗나가다
짓밟다　　핫옷
엇먹다　　엇셈
웃어른　　첫
뭇　　무릇
헛　　얼핏
그릇　　자칫하면

사뭇　　잘못하다

제5절 반모음 "ㅣ"

제7항 용언의 어간의 말음인 "ㅣ"음 중에 다음에 모음 토가 올 적에 이와 합하여 한 음절을 이루는 것은 반모음이므로 이를 ㅣ 자로 적는다.

1) 반모음 ㅣ로 적어야 하는 례:

지다　지고　지여　지였다
치다　치고　치여　치였다
버리다　버리고　버리여　버리였다
스미다　스미고　스미여　스미였다
하비다　하비고　하비여　하비였다
오시다　오시고　오시여　오시였다
가지다　가지고　가지여　가지였다
고치다　고치고　고치여　고치였다
밝히다　밝히고　밝히여　밝히였다

2) 온모음 "ㅣ"로 적어야 하는 례:

기다　기고　기여　기였다
아니다　아니고　아니여　아니였다
미다　미고　미여　미였다
시다　시고　시여　시였다
피다　피고　피여　피였다
삐다　삐고　삐여　삐였다
띠다　띠고　띠여　띠였다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1절 체언의 어간과 토

제8항 체언의 어간과 토가 어우를 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집이	집을	집에	지비	지블	집베
짚이	짚을	짚에	지피	지플	지페
값이	값을	값에	갑시	갑슬	갑세
맏이	맏을	맏에	마지	마들	마데
팥이	팥을	팥에	파치	파틀	파테
옷이	옷을	옷에	오시	오슬	오세
낮이	낮을	낮에	나지	나즐	나제
꽃이	꽃을	꽃에	꼬치	꼬츨	꼬체
떡이	떡을	떡에	떠끼	떠끌	떠께

갑			을		
부엌이	부엌을	부엌에	부어키	부어클	부어케
밖이	밖을	밖에	바끼	바끌	바께
삯이	삯을	삯에	삭시	삭슬	삭세
밤이	밤을	밤에	바미	바믈	바메
손이	손을	손에	소니	소늘	소네
콩이	콩을	콩에	—	—	—
팔이	팔을	팔에	파리	파를	파레

제2절 용언의 어간과 토

제9항 용언의 어간과 토는 구별하여 적는다. 례:

좁다 좁고 좁아 좁으니
짚다 짚고 짚어 짚으니
큮다 큮고 큮어 큮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싶다 싶고 싶어 싶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좇다 좇고 좇아 좇으니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넣다 넣고 넣어 넣니
짊다 짊고 짊어 짊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울니

[부기] 다음과 같은 말들은 오늘날의 언어 의식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가톼 적는다. 례:

1) 어간과 토를 구별하여 적을 것

넘어가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붉어지다
빌어먹다 흘어지다 털어 버리다 떨어지다 쓸어 버리다
엎어지다 일어나다

2) 어간과 토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 할 것

나타나다 너머지다 느러지다 도라가다 빠개지다
비러먹다 부러지다 불거지다 자빠지다 쓰러지다

제3절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제10항 동사의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피동이나 사역으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묻지 아니 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맡기다	맛기다
옮기다	옴기다
웃기다	우끼다
솟구다	소꾸다
뚫리다	뚤리다
울리다	울리다
닫히다	다치다
박히다	바키다
잡히다	자피다
앉히다	안치다
일으키다	이르키다
돌이키다	도리키다
돋우다	도두다
낚이다	낙기다
박이다	바기다
핥이다	할치다
쌓이다	싸히다

제4절 소위 변격 용언의 처리

제11항 종래의 소위 변격 용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종래의 "ㄹ 변격 용언"은 ㄾ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ㄾ 자모는 설단 반전음 "ɾ"로서 조선어에 있어 ㄹ과 비슷하게 발음되나 "ㄴ, ㅂ, ㅅ, 오" 앞에서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죽는 [ㄹ]"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례:

갈다	갈다	갈고	갈지	갈면	갈니	갈ㅂ니다	갈시니	갈오
놀다	놀다	놀고	놀지	놀면	놀니	놀ㅂ니다	놀시니	놀오
길다	길다	길고	길지	길면	길니	길ㅂ니다	길시니	길오
불다	불다	불고	불지	불면	불니	불ㅂ니다	불시니	불오

(2) 종래의 "ㅅ 변격 용언"은 ㆆ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ㆆ 자모는 무성 파렬음 [ʔ]로서 조선어에 있어 다음에 오는 자음을 되게 내게 하며(ㄱ, ㄷ, ㅅ, ㅈ 등을 ㄲ, ㄸ, ㅆ, ㅉ로) "ㄴ, ㄹ, ㅁ, ㅂ, 시" 앞에서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발음되지 않는다. (단, 는, 네, 느냐? 늬? 나? 위에서는 (ʔ)와 같이 발음된다.) 례:

긏다	긏다	긏고	긏소	긏지	긏니	긏ㄹ	긏면	긏ㅂ니다
	긏어	긏오	긏시니	긏는	긏네	긏느냐?	긏늬?	긏나?
낳다	낳다	낳고	낳소	낳지	낳니	낳ㄹ	낳면	낳ㅂ니다
	낳어	낳오	낳시니	낳는	낳네	낳느냐?	낳늬?	낳나?
짖다	짖다	짖고	짖소	짖지	짖니	짖ㄹ	짖면	짖ㅂ니다
	짖어	짖오	짖시니	짖는	짖네	짖느냐?	짖늬?	짖나?

잊다　　잊다　잊고　잊소　　잊지　잊니　잊ㄹ　　잊면　잊ㅂ니다
　　잊어　잊오　잊시니　잊는　잊네　잊느냐?　잊늬?　잊나?

(3) 종래의 "ㅎ 변격 용언"은 어떠한 토 위에서나 ㅎ 받치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하얗다　　하얗다　하얗고　하얗지　하얗니　하얗ㄴ　하얗면
어떻다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니　어떻ㄴ　어떻면
[참고] 좋다　좋다　　좋고　　좋지　　좋니　　좋ㄴ　　좋면

(4) 종래의 "ㄷ 변격 용언"은 ㅅ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ㅅ자모는 유성 설단 마찰음 [ʒ]로서 조선어에 있어 다른 자음 앞에서 [ㅅ]과 비슷하게, 모음과 모음, 모음과 "리" 사이에서는 [ㄹ]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례:

겄다　　겄고　　겄어　　겄으니　　겄리다
싯다　　싯고　　싯어　　싯으니　　싯리다
듯다　　듯고　　듯어　　듯으니　　듯리다
붓다　　붓고　　붓어　　붓으니　　붓리다

(5) 종래의 "ㅂ 변격 용언"은 ㅸ 자모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ㅸ 자모는 량순 마찰음 [W]로서 조선어에 있어 동위치의 파렬음 [P]와 같이 발음되고 "ㄴ, ㄹ, ㅁ, ㅂ, ㅅ"나 모음을 두음으로 하는 토 위에서는 [W]로 발음된다. (단, "는, 네, 느냐? 늬? 나? 느" 위에서는 [P]와 같이 발음된다.) 례:

굽다　　굽다　굽고　굽니　굽ㄹ　굽면　굽ㅂ니다　굽시니　—
　　굽아　굽오　굽는　굽네　굽소　굽느냐?　굽늬?　굽나?
눕다　　눕다　눕고　눕니　눕ㄹ　눕면　눕ㅂ니다　눕시니　눕소서
　　눕아　눕오　눕는　눕네　눕소　눕느냐?　눕늬?　눕나?
돕다　　돕다　돕고　돕니　돕ㄹ　돕면　돕ㅂ니다　돕시니　돕소서
　　돕아　돕오　돕는　돕네　돕소　돕느냐?　돕늬?　돕나?

(6) 종래의 "여 변격 용언"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나 제5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격"은 아니다. 례:

하다　　하여　　하였으니　　하였다
욕하다　욕하여　욕하였으니　욕하였다
일하다　일하여　일하였으니　일하였다
착하다　착하여　착하였으니　착하였다

(7) 종래의 "러 변격 용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례:

이룰다　이룰어　이룰었다

[련결모음 "으"]

ㅅ불규칙(잊니 등) 및 ㅎ불규칙(좋면, 하얗면 등)에서 접속모음"-으"을 적지 않는것은 /이:니/, /조:면/, /하야:면/과 같이 "으"를 끼우지 말고 발음하는것을 전제한것이다.

[접속형]

ㅎ불규칙의 -아/어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여기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나 "조선어 문법"에서는 "그래서, 그럼"과 같이 쓰인바 있다.

누를다　누를어　누를었다

푸를다　푸를어　푸를었다

[부기] 어간의 말음 " ㄹ"를 "ㄴ, ㅂ, ㅅ, ㅗ" 이외의 자음 위에서도 아니 내는 때가 있으나(이르다, 이르고) " ㄹ"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8) 종래의 "르 변격 용언"은 "ㅡ" 소리의 발음 규칙을 련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이 때 종래 "ㄹㄹ"(갈라 갈랐다……) 대신에 ㄹ 자모를 사용한다. ㄹ 자모는 설측음 [l]이다. 례:

가르다	가르다	가르니	가르지
	가ᄅᆡ	가ᄅᆞᆺ다	가ᄅᆡ다
거르다	거르다	거르니	거르지
	거ᄅᆡ	거ᄅᆞᆺ다	거ᄅᆡ다
누르다	누르다	누르니	누르지
	누ᄅᆡ	누ᄅᆞᆺ다	누ᄅᆡ다

[부기1] "ㅡ" 소리 발음 규칙 = "ㅡ" 소리는 그 발음시의 공명강의 형상이 혀는 자연한 위치에 있고, 입은 거의 닫히ㄴ 모양으로 되는 까닭에 어떠한 모음을 발음할 때든지 이 공명강의 형상을 그 시발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므로, "ㅡ" 소리 다음에 어떠한 다른 모음이 오든지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전에는 따로 나지 않는다.

[부기2] 어간의 끝 음절 [르]를 [르]로 내기도 하나(가르다, 거르다, 누르다, 오르다 …) [르]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르]로 내는 것도 허용한다.

단, 어간의 끝소리 "ㄴ, ㅁ"의 아래에서 토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마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신다	신고	신지	신따	신꼬	신찌
안다	안고	안지	안따	안꼬	안찌
검다	검고	검지	검따	검꼬	검찌
넘다	넘고	넘지	넘따	넘꼬	넘찌

제5절 받치ㅁ

제12항 조선어에 사용되는 받치ㅁ은 다음과 같다.

ㅂ ㅍ ㅚ ㅄ ㄷ ㅌ ㅅ ㅿ ㅆ ㅈ ㅊ ㄱ ㅋ ㄲ ㄳ ㅎ ㆆ ㄹ ㄹ ㄼ ㄿ ㄺ ㄾ ㄽ ㅀ ㅀ ㄻ ㄴ ㄵ ㄶ ㅁ ㆁ ㅇ 례:

ㅂ 받치ㅁ	밥	집	탑
	곱다	굽다	좁다
ㅍ 받치ㅁ	무릎	숲	짚
	헝겊	옆	잎
	앞	갚다	깊다

	높다	덮다	드높다
	싶다	짚다	엎다
ㄚ 받치ㅁ	곾다	굮다	긲다
	눔다	덖다	돆다
	맴다	밖다	쉼다
	춤다	꽃닦다	아름닦다
ㅄ 받치ㅁ	값	가엾다	맥없다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실없다	없다	열없다
ㄷ 받치ㅁ	곧	낟	맏
	걷다	곧다	굳다
	닫다	돋다	묻다
	묻다	믿다	받다
	벋다	뜯다	뻗다
	쏟다	얻다	
ㅌ 받치ㅁ	걸	결	끝
	날	머리말	물
	밀	발	별
	살	솥	술
	팔	홀	갈다
	말다	발다	뱉다
	부룰다	붙다	얕다
	열다	짙다	홀다
ㅅ 받치ㅁ	갓	낫	옷
	벗다	솟다	씻다
ㅿ 받치ㅁ	겆다	겼다	깃다
	눗다	다닷다	닷다
	듯다	뭇다	붓다
	싯다	깨닷다	일컷다
ㅆ 받치ㅁ	-겠다	-았다	-었다
	-였다	있다	
ㅈ 받치ㅁ	낮	빚	젖
	갖다	꽂다	꾸짖다
	궂다	낮다	늦다
	맞다		맺다
	버릊다	부르짖다	빚다
	애꿎다	잊다	잦다

	잦다	잦다	젖다
	젖다	찢다	찾다
ㅊ 받치ㅁ	갗	꽃	낯
	닻	덫	돛
	몇	빛	숯
	윷	좇다	쫓다
ㄱ 받치ㅁ	국	녹	떡
	막다	먹다	썩다
ㅋ 받치ㅁ	녘	부엌	
ㄲ 받치ㅁ	밖	깎다	꺾다
	겪다	낚다	닦다
	덖다	묶다	볶다
	섞다	솎다	엮다
ㄳ 받치ㅁ	넋	몫	삯
ㄶ 받치ㅁ	깊다랗다	낳다	넣다
	놓다	닿다	둥글엏다
	땋다	빻다	쌓다
	좋다	찧다	커다랗다
ㅇ 받치ㅁ	긍다	낭다	붕다
	장다	정다	중다
	징다	영보다	잉다
ㄷ 받치ㅁ	갇다	걷다	굳다
	길다	낟다	놀다
	달다	돋다	들다
	멀다	몰다	물다
	벌다	불다	알다
ㄹ 받치ㅁ	길	돌	물
ㄻ 받치ㅁ	여덟		
	넓다	밟다	짧다
ㄾ 받치ㅁ	읊다		
ㄿ 받치ㅁ	기슭	닭	흙
	맑다	얽다	읽다
ㅀ 받치ㅁ	핥다	훑다	훑다
ㅁㅅ 받치ㅁ	곬	돐	옰
ㅁㅎ 받치ㅁ	괂다	끓다	끓다
	닳다	뚫다	싫다
	쓿다	앓다	옳다

	읾다		
ㄾ 받치ㅁ	긇다	닳다	읾다
	(ㄾ 받치ㅁ은 방언임)		
ㄿ 받치ㅁ	곮다	굶다	닮다
	삶다	옮다	젊다
ㄴ 받치ㅁ	논	눈	잔
	신다	안다	
ㅄ 받치ㅁ	앉다	얹다	끼얹다
ㄶ 받치ㅁ	괜찮다	귀찮다	꼲다
	끊다	하잖다	
	많다	언짢다	
ㅁ 받치ㅁ	꿈	땀	솜
	감다	검다	심다
ㅇ 받치ㅁ	둥	콩	땅
ㅱ 받치ㅁ	굶 (구멍의 방언)	낢 (나무의 방언)	

비슷한 받치ㅁ의 비교표

ㅂ ㅛ ㅕ ㅺ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업ㅡ	업고	[업고]	업어	[어버]
엎ㅡ	엎고	[업고]	엎어	[어퍼]
믿엌ㅡ	엌고	[업고]	엌어	[어워]
없ㅡ	없고	[업고]	없어	[업서]

ㅂ ㅕ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곱ㅡ	곱고	[곱고]	곱아	[고바]
굮ㅡ	굮고	[곱고]	굮아	[고와]
굽ㅡ	굽고	[굽고]	굽어	[구버]
굲ㅡ	굲고	[굽고]	굲어	[구워]

ㄷ ㄹ ㅅ ㅈ ㅊ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낟ㅡ	낟과	[낟과]	낟에	[나데]
날ㅡ	날과	[낟과]	날에	[나테]
낫ㅡ	낫과	[낟과]	낫에	[나세]
낮ㅡ	낮과	[낟과]	낮에	[나제]
낯ㅡ	낯과	[낟과]	낯에	[나체]

ㅎ ㅎ ㅅ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낳ㅡ	낳고	[나쿄]	낳아	[나아]
낳ㅡ	낳고	[나코]	낳아	[나아]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낫ㅡ	낫고	[낟고]	낫아	[나사]
나ㅡ	나고	[나고]	나아	[나아]

ㄷ ㅅ ㄹ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묻ㅡ	묻고	[묻고]	묻어	[무더]	묻으니	[무드니]
뭇ㅡ	뭇고	[묻고]	뭇어	[무러]	뭇으니	[무르니]
물ㅡ	물고	[물고]	물어	[무러]	물니	[무니]

ㄹ ㄹ

례 (의미)	표기	발음	표기	발음
물ㅡ	물'가	[물까]	물'소	[물쏘]
묻ㅡ	묻ㄹ까?	[물까]	묻소	[무소]
불ㅡ	불'가	[불까]	불나니	[불나니]
붇ㅡ	붇ㄹ까?	[불까]	붇나니	[부나니]
가ㅡ	가니	[가니]	가고	[가고]
갈ㅡ	갈니	[가니]	갈고	[갈고]

제6절 원형 표시

제13항 용언의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 "읏"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과, "ㅁ, 음, 엄, 암"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물론하고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걷음걷이 굽이 길이 높이 다듬이 덥이 맞이 먹이 미닫이
벌이 벼훑이 살리ㅁ살이 손잡이 쇠붙이 춥이 풀이 해돋이
땀받이

(2)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가깝이 게으틔 곱이 깊이 길이 다틔 많이 새롭이 실없이
적이 좋이 빠틔

(3) "읏"이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검읏검읏 붉읏붉읏 옥읏옥읏

(4) "ㅁ, 음, 엄, 암"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걷음 돋ㅁ 받치ㅁ 졸음 죽음 품갚음 얼음 엮음 울음
묻엄 죽엄
막암

제14항 용언의 어근에 "이, 옷, ㅁ, 음, 엄, 암" 이외의 음이 붙어서 타사로 전성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1) 명사로 된 것

귀머거리 마개 마중 불겅이 비렁벵이 코뚜래 까마귀 뜨더귀

쓰레기

(2) 부사로 된 것

너무　　도로　　바투　　비로소　　자주　　뜨덤뜨덤

제15항 명사의 어근 아래에 "이, 아지, 웅"이 불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1) "이"가 불어서 타사로 변한 것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집집이　　앞앞이

(2) "이, 아지, 웅"이 불어서 뜻만이 변한 것

곰배팔이　　네눈이　　륙손이　　삼발이　　절뚝발이　　애꾸눈이　　목아지

박아지　　집웅

제16항 명사의 어근 아래에 "이, 아지, 웅" 이외의 음이 불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바깥　　사타구니　　지푸라기　　꼬락서니　　끄트머리　　싸라기

제17항 명사나 용언의 어근 아래에 자음으로 첫소리를 삼은 음절이 불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한 것은 그 명사나 용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일) 명사의 어근 아래에 자음 음절이 불어서

(1) 타사로 변한 것

값지다　　빛나다　　홑지다　　꽃답다

(2) 뜻만이 변한 것

부엌데기　　놋갓쟁이　　빛갈　　끝장　　옆댕이　　잎사귀

(이) 용언의 어근 아래에 자음 음절이 불어서

(1) 타사로 변한 것

낚시　　늙정이　　뜯게질

(2) 뜻만이 변한 것

갉작갉작하다　　굵다랗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늙수그레하다

얽죽얽죽하다　　엎드리다　　엎지르다　　읊조리다

[부기] 하기의 말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1) 덧받치ㅁ의 끝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 것

골막하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팍하다　　꼴랑　　올무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것

납작하다　　멀끔하다　　멀쑥하다　　멀끔하다　　따짝따짝　　고달프다　　고프다

슬프다　　아프다　　가쁘다　　구쁘다　　예쁘다

제18항 용언의 어근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깃브다	기쁘다
낮브다	나쁘다
믿브다	미쁘다
밭브다	바쁘다

단, "부족하다"의 뜻으로는 "나쁘다"로 적는다.

제19항 동사의 어근에 "치"가 붙어서 힘줌을 나타내는 것은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놓치다	놋치다
닫치다	닷치다
덮치다	덥치다
받치다	밧치다
뻗치다	뻣치다
엎치다	업치다

제20항 형용사의 어근에 "히"나 "이"나 또는 "추"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굳히다	구치다
굽히다	구피다
궂히다	구치다
넓히다	널피다
밝히다	발키다
젖히다	저치다
좁히다	조피다
높이다	노피다
옥이다	오기다
갖추다	가추다
낮추다	나추다
늦추다	느추다
맞추다	마추다

제21항 동사의 어원적 원형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조사로 전성하여 어근과 멀어지ㄴ 것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마저(그것 마저)	맞어
부터(오늘 부터)	붙어
조차(너 조차)	좇아

제22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형용사의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된 것은 그 어근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1) 부사로 된 것

갑	을
넉넉히	넉너키
답답히	답다피
꾸준히	꾸주니
똑똑히	똑또키
바특이	바트기
반듯이	반드시
큼직이	큼지기
깨끗이	깨끄시
꼿꼿이	꼿꼬시
끔찍이	끔찌기

(2) 명사로 된 것

갑	을
건건이	건거니
배불뚝이	배불뚜기
코납작이	코납자기

제23항 의성, 의태적 부사에나 "하다"가 붙지 아니 하는 어원적 어근에 "이"나 다른 소리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근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1) 의성적 부사에 "이"가 붙어서 된 말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나라리 매미 꽹과리 꾀꼬리 딱다구리 뻐꾸기

(2) 의태적 부사에 "이"가 붙어서 된 말

누더기 덕더기 더퍼리 두드러기 무더기 살사리 칼싹두기 푸서기 깍두기 떠버리 삐쭈기 어루기

(3) "하다"가 아니 붙는 어근에서 된 말

갑자기 동그라미 반드시 부스러기 삼사미 슬며시 짬짜미 일찌기

제24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과 "하다"를 구별하여 적는다. 례:

급하다 속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딱하다

제25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동사나 형용사는 그 어근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번득이다	번드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제26항 동사나 형용사의 어원적 어근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 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거두다 고치다 기르다 도리다 드리다 만나다 미루다 바치다

부치다　점잖다　이루다

거란지　고름　굽도리　넙치　코끼리　다리　도리깨　목거리　무녀리

제27항 용언의 어근에 "이,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근의 끝 음절이 그 "ㅣ, ㅣ" 소리를 닮아서 다듸 나는 일이 있을찌라도, 그 본 모음을 다듸 적지 아니 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목접이	목젭이
박이옷	백이옷
먹이다	맥이다
박이다	백이다
보이다	뵈이다
죽이다	쥑이다
파이다	패이다
까이다	깨이다
뜨이다	띄이다
막히다	맥히다
박히다	박히다
잡히다	잽히다
맡기다	맽기다
벗기다	벳기다
숨기다	쉼기다
뜯기다	띋기다
쫓기다	쬦기다
안기다	앤기다
옮기다	욂기다

[부기] 이 경우에서 둘이 합하여 아주 딴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 대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리ㄴ다.)

갑	을	병
내다	나이다	내이다

제28항 받치ㅁ이 있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된 것은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1) "앟(엏)-"

갑		을	
감앟다	검엏다	가맣다	거멓다
놀앟다	눌엏다	노랗다	누렇다
동글앟다	둥글엏다	동그랗다	둥그렇다
밝앟다	벍엏다	발갛다	벌겋다
팔앟다	펄엏다	파랗다	퍼렇다
싸늘앟다	써늘엏다	싸느랗다	써느렇다

(2) "엌-"

갑	을
간질엏다	간지렇다
믿엏다	미덣다
부들엏다	부드렇다
시끌엏다	시끄렇다
징글엏다	징그렇다
어질엏다	어지렇다

(3) "없-"

갑	을
부질없다	부지렶다
상없다	—
시름없다	시르멊다

제7절 품사 합성

제29항 둘 이상의 어근이 복합할 적에는 소리 접변의 유무를 물론하고 각각 그 어근을 밝히여 적는다. 례:

(일) 소리가 변하지 아니 할 적

(1) 자음과 자음 사이

국그릇 걷잡다 낮보다 낮잡다 돋보다 맏딸 맞절 밤낮
밥벌이 꽃별 옷속 잉닫아

(2) 자음과 모음 사이

감알다 눈웃음 물오르다 물오리 밤알 살얼음 속없다 속옷
손아귀 손위 참외 철없다 친어머니 큰언니 홍아비

단, 어근이 불분명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례:

며칠 오라버니 이틀

(이) 소리가 변할 적

(1) 자음과 자음 사이

겁나다 겉늙다 국말이 굶주리다 맏며느리 맞먹다 몇날 받내다
밥물 벋놓다 빛나다 젖몸살 칼날 홀몸 흙내 엎누르다

(2) 자음과 모음 사이

값없다 넋없다 무릎아래 부엌안 숫음식 젖어미 첫아들 팥알
헛웃음 홑옷 꽃아래 옷안 옻오르다 웃어른 웃옷

[부기] 위 품사의 독립한 소리 "ㄴ"가 딴 소리로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되, 두 말을 구별하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할아버지	한아버지
할머니	한어머니

제30항 두 어근이 합하여 합성어가 될 적에 중간에 감하여지는 음이 있더라도 감하여지ㄴ음을 밝히여 적지 아니 한다.

겨우살이 다달이 마되 마소 무자위 련느질 부나비 소나무

차돌　　화살　　따님　싸전　　여닫이　　모자라다

제31항 합성어의 사이에서 위'말의 말음이 모음이나 "ㄴ, ㄹ, ㅁ, ㅇ"일 때에 종래의 소위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과 아래'말의 두음이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중간에 절음부 " ' "로써 표한다. 례:

(1) 소위 "사이 ㅅ" 소리가 나는 것

겨'불　고'집　그믐'달　달'빛　뒤'간　등'불　문'간　배'전　봄'비
손'등　초'불　초생'달　코'날　움'집　이'몸　굴'대　날'짐승　들'것
들'보　들'숨　물'것　들'돌　물'부리　들'손　들'장지　길'짐승　날'숨
설'주　쉴'부채　쥘'손

(2) 소위 "사이 ㅅ"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 소리가 나는 것

가랑'이　갓'양　겹이불　공'일　낮'일　논'일　놋'요강　담'요
대'잎　들'일　물'약　밤'윷　밤'이슬　밤'일　밭'이랑　버들'잎
벋'이　배개'잇　부엌'일　속'잎　잣'엿　창'열　채'열　총'열
콩'엿　편'윷　홑'이불　꽃잎　아래'이　앞'이　앞'이마　어금'이
옷'임자　이불'잇

[부기] 한자어로서 이에 준할 만한 경우에도 절음부로써 표할 수 있다. 례:

(1) 가'법　가'수　경리'과　기'수　기요'과　내'과　대'수　도'수　리'과
서무'과　서'자　소아'과　수'자　자재'과　제'법　총무'과　치'과　호'수
외'과　우'수　감'법　구강'과　권'수　문'자　산부인'과　상'과　승'법
잠'간　한'자　결'산　결'심　결'정　달'성　발'달　발'전　절'대
필'시　활'동

(2) 관절'염　맹장'염

제32항 복합 명사 사이에서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1)	멥쌀	메ㅂ쌀
	좁쌀	조ㅂ쌀
	찹쌀	차ㅂ쌀
	햅쌀	해ㅂ쌀
(2)	수캐	수ㅎ개
	암탉	암ㅎ닭
	안팎	안ㅎ밖

제8절 원사와 접두사

제33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우틔여 한 단어를 이를 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 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밝히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새'놀앟다	샌노랗다

갑	을
시'눌엏다	신누렇다
새'맑앟다	샘말갛다
지'이기다	진니기다

제4장 어휘에 관한 것

제1절 한자어

제34항 재래의 한자 자전에 "ㅣ"로 달리ㄴ 자음은 모두 "ㅏ"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간친	군친
발해	불히
사상	스샹
자녀	즈녀
차제	츠뎨
탄하	툰하
항상	흥샹
아동	우동

제35항 재래의 한자 자전에 "·ㅣ"로 달리ㄴ 자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개량	긔량
내외	늬외
대용	듸용
거래	거릐
매일	믜일
배양	븨양
색채	싁칀
재능	짓능
책자	칙자
태생	틔싱
해변	힋변
애석	읫셕

제36항 "ㄷ, ㄸ, ㅅ, ㅈ, ㅊ"를 두음으로 삼은 "ㅑ, ㅕ, ㅛ, ㅠ, ㅣ, ㅖ, ㅞ"는 "ㅏ, ㅓ, ㅗ, ㅜ, ㅣ, ㅔ, ㅟ"로 적되 "ㄷ"는 "ㅈ"으로 "ㄸ"는 "ㅊ"으로 고치ㄴ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전답	뎐답
조수	됴수
지구	디구
제자	뎨자
천지	텬디
철도	텰도
촉루	툑루
체재	톄재

갑	을
사회	샤회
서류	셔류
소년	쇼년
수석	슈셕
장단	쟝단
정중	졍즁
조선	죠선
중심	즁심
차륜	챠륜
처자	쳐ᄌᆞ
초부	쵸부
추수	츄슈
취객	취긱

제37항 "계, 례, 혜"는 본음 대로 적고, "메, 세, 제, 체, 폐"의 "ㅖ"는 "ㅔ"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1)	계산	게산
	계획	게획
	사례	사레
	혜택	혜택
(2)	련메	연몌
	세계	셰계
	제도	졔도
	체류	쳬류
	폐회	폐회
	폐부	폐부

제38항 "ㅅ, ㅈ, ㅊ"를 두음으로 삼은 "ㅡ"를 가지ㄴ 자음은 그 본음 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ㅣ"음으로 변하여지ㄴ 것에 한하여 "ㅣ"로 적는다. 례:

슬하 습관 승리 즉시 증인 증조 측량 층계

"ㅣ"음으로 변하여지ㄴ 것

금실 법칙 질책 편집

제39항 "ㅂ, ㅍ, ㅁ"를 첫소리로 삼은 "ㅡ"를 가지ㄴ 자음은 그 모음을 "ㅜ"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북방	븍방
북풍	븍풍
붕우	붕우
품질	픔질
묵화	믁화
침묵	침믁

제40항 "희, 의"의 자음은 본음 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례:

희락　　희망　　유희　　회의　　의원　　의의

제41항 "긔, 븨, 싀, 츼"로 달리ㄴ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기차	긔챠
일기	일긔
악기	악긔
곤비	곤븨
시탄	싀탄
치중	츼즁

제42항 "냐,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두음으로 될 적에는 그 본음에 좇아 적되, 이를 "야, 여, 요, 유, 이"로 적지 아니 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참고
녀자	여자	자녀
녕변	영변	안녕
뇨도	요도	수뇨관
니토	이토	설니

제43항 "ㄹ"소리가 단어의 두음으로 될 적에는 그 본음에 좇아 적되, 이를 "ㄴ"으로 고치거나 또는 성략하지 아니 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참고
락원	낙원	쾌락
로인	노인	조로
루각	누각	고루
릉묘	능묘	구릉
래일	내일	미래
뢰성	뇌성	우뢰
량심	양심	개량
력사	역사	리력
료리	요리	재료
류수	유수	하류
리론	이론	론리
례의	예의	의례

단, 어느 위치에 있어서나 "ㄹ"소리를 아니 내는 말은 아니 내는 대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노예	노례
예속	례속

제44항 재래의 자전에 아무 규정이 없으면, 두 가지 음을 가지ㄴ 자는 그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례:

가택	시댁
당분	사탕
동구	통촉
량신	갑진

륙일	류월
목재	모과
목단피	모란화
서장	상태
십일	시월
제출	보리
팔일	파일

[부기] "不"자는 다음에 "ㄷ, ㅈ"를 두음으로 삼은 음이 올 적에는 "부"로 적는다. 례:

(1) 부단 부당 부도체 부도옹 부동 부득불

(2) 부지연 부적당 부절 부족 부주의 부지증

제45항 두 모음 사이에서 "ㄴ"가 "ㄹ"로만 발음되는 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ㄴ"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1)	대로	대노
	허락	허낙
	회령	회녕
(2)	의논	의론

제46항 두 모음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 것은 본음 대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기념	기렴
기능	기릉

제47항 한자음이 련발될 적에 "ㄴㄴ"를 "ㄹㄹ"로 내거나, "ㄴㄹ"를 "ㄹㄹ"로 내거나, "ㄹㄴ"를 "ㄹㄹ"로 내는 일이 있을찌라도, 이를 본음 대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1)	곤난	골란
	관념	괄렴
	만년	말련
(2)	관리	괄리
	천리	철리
(3)	발노	발로
	말년	말련

제2절 략어

제48항 말의 끝 음절의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위'음절에 받치ㅁ으로 받치여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본말	갑	을
아기야	악아	아가
기러기야	기럭아	기러가
애꾸눈이야	애꾸눈아	애꾸누나
어제저녁	엊저녁	어쩌녁

본말	갑	을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어끄저께
까마귀까치	까막까치	까마까치
가지고	갖고	갓고
미치고	및고	밋고
디디고	딛고	딧고
온가지	온갖	온갓

제49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지ㄴ 것은 그 소리 대로 적는다. 례:

본말	줄ㄴ 말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이	무에
그것이	그게
무엇을	무얼
그것으로	그걸로

제50항 모음으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 적에는 줄ㄴ 대로 적을 수 도 있다. 례:

	본말		줄ㄴ 말	
(1)	뜨이다		띄다	
	쓰이다		씌다	
(2)	가아	가았다	가	갔다
	서어	서었다	서	섰다
(3)	보이여	보이였다	뵈여	뵈였다
	뜨이여	뜨이였다	띄여	띄였다
	쓰이여	쓰이였다	씌여	씌였다

제51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지ㄹ 적에는 "ㅎ"를 중간에 놓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위'음절에 받치ㅁ으로 씀도 허용한다. 례: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하다.)

본말	갑	을
가하다	가ㅎ다	갛다
다정하다	다정ㅎ다	다졍다
부지런하다	부지런ㅎ다	부지렇다
정결하다	정결ㅎ다	정걿다
흔하다	흔ㅎ다	흖다
아니하다	안ㅎ다(안하다)	않다

제52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 하고 소리 대로 적는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결코	겫고
하마터면	하맣더면

제53항 복합 명사 사이에 있는 "의" 토는 이를 성략할 수 있다. 례:

본말	줄ㄴ 말
닭의 알	닭알
소의 고기	소고기

제3절 표준어

제54항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 기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 이상 있음일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례:

서말 석섬 세개
너말 넉자 네치

제55항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의 음이 탈락되거나 혹은 군소리가 더하여 한 품사로 익어 버리ㄴ 것은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여 적지 아니한다. 례:

겨드랑이 너부죽하다 너비 다습 대여섯 매듭 무직하다
뭇 버르장이 소댕 커다랗다 여드레 여나문 여습
예닐곱 이레

제56항 용언이 활용할 적에 그 어간의 끝 음절의 모음에 따라 그 접속 토와 과거형 토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	토
(1)	ㄱ) ㅏ, ㅗ	아, 았
	ㄴ) ㅡ(앞에 ㅏ, ㅗ가 올 경우)	아, 았
(2)	ㄱ) ㅓ, ㅜ	어, 었
	ㄴ) ㅡ(ㅡ음 뿐인 경우)	어, 었
	ㄷ) ㅡ(앞에 ㅓ, ㅜ, ㅡ, ㅣ가 올 경우)	어, 었
(3)	ㅚ, ㅣ, ㅐ, ㅔ, ㅟ, ㅝ, ㅢ, (하)	여, 였

례:

(1) "아"로 할 경우

ㄱ)	낳다	낳아	낳았다
	막다	막아	막았다
	얇다	얇아	얇았다
	꿎다	꿎아	꿎았다
	좋다	좋아	좋았다
ㄴ)	따르다	따라	따랐다
	사르다	사라	사랐다
	고프다	고파	고팠다
	오르다	오라	오랐다

(2) "아"로 할 경우

ㄱ)	젛다	젛어	젛었다
	겪다	겪어	겪었다
	풀다	풀어	풀었다
	눆다	눆어	눆었다
ㄴ)	긁다	긁어	긁었다

크다	킈	킜다
헤프다	헤픠	헤픴다
예쁘다	예삐	예뻤다
구쁘다	구삐	구뻤다
슬프다	슬픠	슬픴다
치르다	치러	치렀다

(3) "여"로 할 경우

끼다	끼여	끼였다
피다	피여	피였다
개다	개여	개였다
세다	세여	세였다
되다	되여	되였다
쉬다	쉬여	쉬였다
희다	희여	희였다
하다	하여	하였다

단, 받침ㅁ이 있을 경우에는 "어"로 적는다.

심다	심어	심었다
맺다	맺어	맺었다
짖다	짖어	짖었다

제57항 어간의 끝 음절이 "ㅅ, ㅈ, ㅊ"의 받침ㅁ으로 끝났을 적에는 토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례: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리ㄴ다.)

갑	을
벗으니	벗이니
있으니	있이니
갖은	갖인
굿은	굿인
앉으니	앉이니
좇으니	좇이니
쫓으니	쫓이니

제58항 순조선어나 한자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히"와 "이"를 혼동될 적에 한하여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적는다. 례:

(1) "히"로 할 것

가지런히 고요히 나란히 덤덤히 마땅히 부지런히 튼튼히
흔히 꾸준히 가히 감히 극히 능히 분명히
속히 심히 자연히 장히 족히 쾌히 열렬히
열심히

(2) "이"로 할 것

곳곳이 기여이 나날이 번번이 집집이 헛되이 일일이[1] 일일이[2]

---

1. 一一。2.事事。

[부기] 분명히 "히"나 "이"로만 나는 것은 나는 대로 적는다. 례:

(1) "히"로만 나는 것

작히

(2) "이"로만 나는 것

너부죽이 적이 큼직이 지긋이 따뜻이 뚜렷이

[부기] 분명히 "히"나 "이"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은 상기 규정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 한 쪽의 말을 버리ㄴ다. 례:

취할 것	버리ㄹ 것
답답히	답답이
섭섭히	섭섭이
똑똑히	똑똑이

제59항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다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한다. 례:

(1) 이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요, 또 저것은 소요.

(2) 갈 사람은 가지요.

제4절 외래어

제60항 조선어에 동화된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 한다.

(2) 표음주의를 취한다.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어음학 부호에 사용되는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5장 문장에 관한 것

제1절 띄여 쓰기

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여 쓰되 조사는 위'말에 붙이여 쓸 수 있다. (단, 문자 개혁시에는 새 룐ㄴ 규정에 의한다.)

례:

(1) 문장과 단어

어제 밤나무를 찍었소. 어제'밤 나무를 찍었소.

(2) 체언, 용언과 조사

나는 사람도 우리만 입으로는 밥으로도 너조차

(3) 부사와 조사

잘도 잘은 잘이야 잘만 빠듸도 빠듸는 빠듸야 빠듸만

그다지도 퍽은 늘이야 멀리만

단, 문장의 앞뒤 관계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를 적당히 붙이여 씀을 허용한다. 례:

원칙	허용
이 곳 저 곳	이곳 저곳
제 이십 일 항	제 이십 일항
좀 더 싸우자	좀더 싸우자
저녁 잠	저녁잠

제62항 수를 우리 글로 적을 때에는 십진법에 의하여 띄여 쓴다. 례: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제63항 둘 이상 단어로 된 고유 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여 쓴다. 례:

리 순신　　자강 도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제일 인민 학교

제2절 부호

제64항 문장에 쓰는 부호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종지부 . 문장의 끝남을 보이르 때 쓴다.
2) 중지부 : 한 문장이 대체로 꽅나면서 다음 문장과 의미 련락됨을 보이르 때 쓴다.
3) 정류부 ; 의미가 좀 중단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여 머무릐야 할 자리에 쓴다.
4) 휴식부 , 의미가 좀 중단되므로 읽을 적에 잠간 쉬는 것이 좋르 자리에 쓴다.
5) 의문부 ? 의심이 나 뭀음을 나타낼 때 그말의 다음에 쓴다.
6) 감탄부 ! 느끼ㅁ이나 부므짖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7) 인용부 "" 다른 말을 따다가 쓸 때 그 말의 앞뒤에 가븍서 쓴다.
8) 내인용부 '' 다른 말을 따다가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말을 본디 따온 것이 있는 때 그 본디 따온 말의 앞뒤에 가븍서 쓴다.
9) 접합부 - 단어의 끊어지ㄴ 자리를 잊어 붙이는 뜻을 보이르 때 쓴다. 한 단어가 두 줄에 걸치여 적히르 경우는 위'줄의 끝에 쓴다.
10) 첩어부 < 두 자 혹은 말을 거듭 쓸 때 그 거듭 쓰는 대신에 쓴다.
11) 괄호 ( ), 《 》, { }, [ ] 어떻ㄴ 부분을 한 덩이로 몪을 때 이를 각각 적度히 쓴다.

조선어 신철자법 (끝)

"조선어 신 철자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조선어 연구"제2권 제3호에 揭載된 것.)

1. 토 "아, 어, 여(았, 었, 였)"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	토
(1)	ㄱ) ㅏ ㅗ	아, 았
	ㄴ) ㅡ(앞에 ㅏ ㅗ가 올 경우)	아, 았
(2)	ㄱ) ㅓ ㅜ ㅣ	어, 었
	ㄴ) ㅡ(ㅡ음 뿐인 경우)	어, 었
	ㄷ) ㅡ(앞에 ㅓㅜㅡㅣ가 올 경우)	어, 었
(3)	ㅣ, ㅐ, ㅔ, ㅚ, ㅟ, ㅢ, (하)	여, 였

(단, 받침ㅁ이 있을 경우에는 어, 었)

2. 자웅의 뜻을 나타낼 때 종래 "암, 수"로 적던 것을 "앍, 숳"로 적는다. 례:

앍개 앍닭 앍놈

숳개 숳닭 숳놈

(부기) 개별적인 어휘로 나타나는 "머리카락, 안팎, 휘파람"들은 그대로 적는다.

3. 종래 "숟가락, 섣달, 이튿날, 사흗날"로 적던 말 들은 각각 "숫가락, 섯달, 이튼날, 사흔날"들로 적는다.

4. 종래 표준어로 인정되였던 다음의 말들은 아래와 같이 고치ㄴ다.

새로 정한 표준어	종래의 표준어
곳	곧
곧	곳
우	위
도적	도둑
빋	빚
모주리	모조리
쫑다	쪼다

5. 고유 명사 밑에 밑줄을 긋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조선어 신 철자법》

원 저 작 물

《조선어신철자법》

(조선 어문 연구회)

1948(주체37)년 1월 15일 발행

디지털 입력 및 한글화

대림종정